

##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는 부동산자산이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자산 지니계수는 0.710, 총소득은 0.587로 나타나, 자산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함

- 순자산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음

-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정의할 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산빈곤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퇴직 시점이 가까운 장년층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1. 머리말

□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단순하게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를 수반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중·고령자 관련 조사를 시작하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와 노동연구원의 「고령자연구패널조사」가 대표적임

○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실태 및 노후준비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로서, 국민연금이 저축이나 노동공급 등과 같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의 소득분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가구의 자산분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고령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편임

□ 여기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자료 중 가구주가 만 50세 이상인 가구를 추출하여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자산의 구성(portfolio)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등의 합을 총자산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을 정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고령자가구 자산분포의 특징과 자산불평등 현황을 살펴봄

## 2. 선행 연구의 검토

- 우리가 자산보유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자산이 소비평활화 (consumption smoothing)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임(Caner and Wolff, 2004)
  - 자산의 소비평활화 기능(또는 역할)은 개인 또는 가계가 불완전한 자본시장에 직면해 있다거나 또는 차입제약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됨
- Davies and Shorrocks(1999)는 1980년대 중반 몇몇 국가들의 가계자산 집중도를 정리하고 있음
  - 자산불평등이 낮은 국가로는 호주, 한국,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등인데, 이들의 지니계수는 0.5~0.6 수준이고 상위 1% 가계의 자산점유율은 대략 20% 정도임
  - 그 다음으로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은 상위 1%가 자산의 약 26% 정도를 가지고 있음
  - 한편 자산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인데 지니계수는 0.8 수준이고, 상위 1%의 자산점유율은 30%를 넘음
- Davies and Shorrocks(1999)는 ‘자산분포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of wealth distribution)’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음
  - 첫째, 소비지출, 총소득, 근로소득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자산분포는 이들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됨
    - 선진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0.3~0.4 이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0.5~0.9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상위 1%의 가계 또는 개인의 소득 점유율은 10%를 넘지 않지만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15~35%에 이르고 있음
  - 둘째, 금융자산은 비금융자산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셋째,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다른 자산보다 더욱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넷째,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나 개인이 존재함
  - 다섯째, 20세기에 있어서 자산분포의 불평등은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Caner and Wolff(2004)는 1984~1999년 기간 동안 미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용가능한 저축이 부족한 가구(자산빈곤가구)의 구성비와 특징을 살펴보고 있음

- 자산빈곤가구는 '일정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구'로 정의됨
- 첫째, 공식적인 소득개념에 기초한 빈곤율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율은 1984~1999년 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음
- 둘째,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고 또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빈곤의 심도(severity)는 오히려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3.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이하 KReIS 2005년도) 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가구내에 50세 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표본집단 5,11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50세 이상의 가구원 8,644명임

- 가구자산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지니계수와 엔트로피 지수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histogram, Lorenz 곡선, Pen's diagram 등을 부가적으로 사용함

- 지니지수

$$\text{Gini} = \frac{1}{\mu n^2} \sum_{i=1}^N \sum_{j=1}^N w_i |y_i - y_j|$$

- 여기서  $\mu$ 는  $y$ 의 산술평균( $\mu = \frac{1}{n} \sum y_i$ ),  $y_i$  및  $y_j$ 는  $i$ 번째 및  $j$ 번째 가구의 순자산,  $w_i$ 는 가구가중치, 그리고  $N$ 은 표본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가구가중치의 합은 1임 ( $\sum w_i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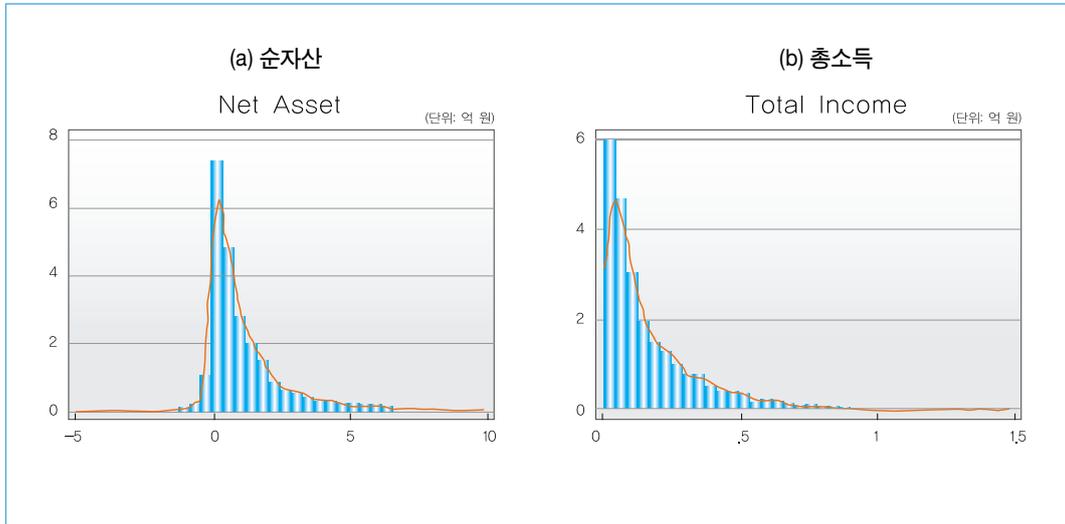
- 일반화된 엔트로피(Generalized Entropy; GE) 지수

$$\text{GE}(\alpha) = \frac{1}{\alpha(\alpha-1)} \left[ \frac{1}{n} \sum_{i=1}^N w_i \left( \frac{y_i}{\mu} \right)^\alpha - 1 \right]$$

- GE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무한대( $\infty$ )까지인데, 모든 자산이 동일하여 분배상태가 완전히 균등한 경우에 최소치 0을 가지며, 분배상태가 불평등 할수록 그 값은 커짐
- 또  $\alpha$ 의 값이 작을수록 하위자산계층의 자산변화에 민감하며,  $\alpha$  값이 클수록 상위자산 계층의 자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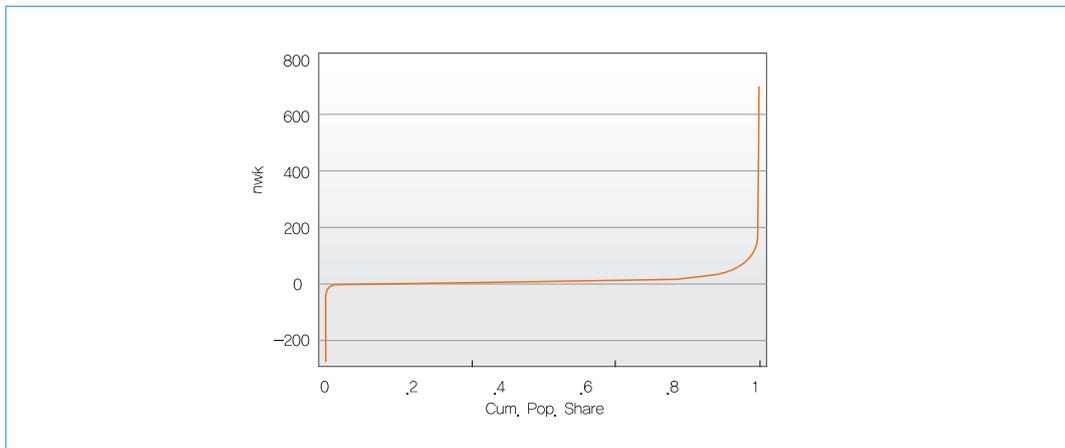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이 순자산인데 분포도 상에서 음(-)의 값을 갖는 가구가 많고, 0 부근에서 더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빈곤 가능성을 시사함(그림 1) 참조)

[그림1] Histogram: 순자산과 총소득



□ <그림 2>의 Pen's Parade는 순자산이 가장 작은 사람에서 부터 자산규모가 가장 큰 사람까지 순서대로 줄을 세운 것인데, 맨 오른쪽에서 급격하게 곡선이 올라가는 것은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상이 심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그림2] 순자산에 대한 Pen's Parade



□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 는 사실이 발견됨

-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 는 사실이 성립함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자산 계층을 각각 1/3씩 구분하여 상·중·하위 계층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계층의 자산점유율은 82.2%로 이들이 순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위계층은 순자산의 17.8%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계층의 총소득 점유율(72.5%)에 비해 자산의 상위계층 집중도는 더욱 심한 상태를 알 수 있음
- 하위계층의 순자산점유율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자산과 총부채가 거의 동일함을 의미함

〈표1〉 순자산과 총소득의 자산계층별 점유율

(단위: %)

|           | 순자산  | 총소득  | 총자산  | 부동산 자산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총부채  |
|-----------|------|------|------|--------|------|------|------|
| 상위 1%     | 12.0 | 8.2  | 12.0 | 12.2   | 18.4 | 27.6 | 24.0 |
| 상위 5%     | 34.0 | 23.4 | 32.4 | 33.7   | 47.7 | 56.7 | 50.6 |
| 상위 10%    | 49.3 | 36.1 | 46.9 | 49.0   | 63.2 | 64.8 | 69.5 |
| 하위(1/3)계층 | 0.0  | 4.9  | 3.4  | 3.2    | 0.0  | 0.0  | 0.0  |
| 중위(1/3)계층 | 17.8 | 22.5 | 17.8 | 17.6   | 5.5  | 3.3  | 3.5  |
| 상위(1/3)계층 | 82.2 | 72.5 | 78.8 | 79.2   | 94.5 | 96.7 | 96.5 |

주: 1.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이므로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음. 전체 순자산의 합으로 계층별 순자산 합계를 나누어 순자산 점유율을 구하면 점유율이 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2. 기타자산은 사업용 이외의 승용차, 농기계, 회원권 등의 자산을 의미하며, 자산평가액은 지금 당장 팔려고 내놓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격에 기타자산의 소유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 중·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Gini 지수<sup>1)</sup>는 0.7102로 나타났는데, 총소득의 지니지수 값인 0.5869과 비교해 볼 때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순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자산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타자산의 지니지수가 0.8669로 가장 높았으며, 총부채는 0.8412, 금융자산이 0.8192임
- 부동산자산은 0.6644로 나타나 순자산 구성항목 중 지니계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2〉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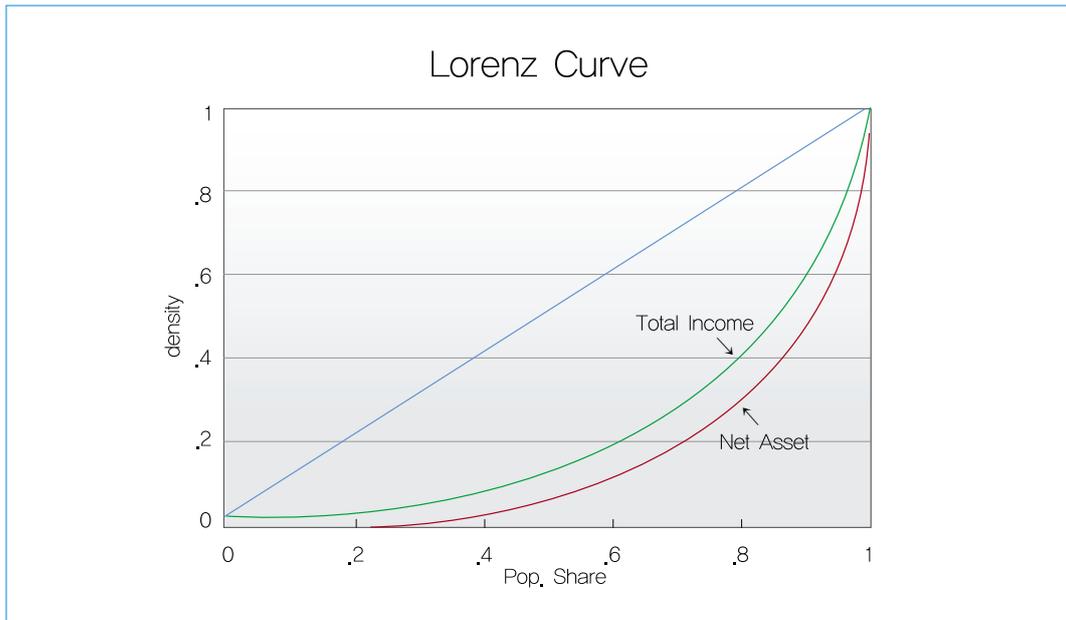
|        | 순자산    | 총소득    | 총자산    | 부동산 자산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총부채    |
|--------|--------|--------|--------|--------|--------|--------|--------|
| Gini   | 0.7102 | 0.5869 | 0.6510 | 0.6644 | 0.8192 | 0.8669 | 0.8412 |
| Gini_W | 0.7880 | 0.5532 | 0.6847 | 0.6998 | 0.8426 | 0.8969 | 0.8943 |
| MLD    | 0.7392 | 0.3855 | 0.8734 | 0.7058 | 0.4608 | 0.3107 | 0.0539 |
| GE(2)  | 2,0693 | 1,1421 | 1,7858 | 2,0300 | 3,7273 | 9,3613 | 6,9218 |

주: MLD는 Mean Log Deviation, Gini\_W는 OECD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square root)를 적용하여 구한 Gini계수임. 기타자산의 정의는 앞의 표에 있는 각 주를 참조

1) Gini 지수는 Gini 계수에 100을 곱한 값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양자를 구분 없이 사용함

- <그림 3>은 순자산과 총소득의 Lorenz 곡선을 나타낸 것인데, 완전평등선에서 순자산이 총소득보다 더 멀리 위치하고 있음. 이는 앞에서 구한 순자산불평등도가 총소득불평등도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과 일치함

[그림3] 순자산과 총소득의 Lorenz Curve



- 중 · 고령자가구에서 순자산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부동산자산(1.024)이 순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sup>2)</sup> 금융자산(0.1022)과 기타자산(0.0212)은 미미한 수준임
  - 순자산의 구성요소와 순자산간의 상관계수는 부동산 자산이 0.9655로 가장 높고, 금융자산이 0.7097, 기타자산은 0.6090임

#### 4. 자산불평등 요인 분해와 자산빈곤 결정요인

- 자산원천별로 불평등 요인을 구분해 보면 부동산자산이 순자산불평등의 대부분(약 92%)을 설명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약 8%)과 기타자산(약 1%)은 설명력이 미미함
  - 부동산자산에 대해 다시 세부 항목별로 불평등 요인분해한 결과, 거주주택이 0.5787로 가장 높은 불평등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자산의 기여도는 0.2497로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남

<sup>2)</sup>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인데 총부채가 양수(+)이므로 총자산의 순자산에 대한 비율은 1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며, 총부채는 차감항목이므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임

- 중·고령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표본수가 작은 40·90대를 제외하고 연령대에 따른 빈곤층의 비율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 50대 24.5%순으로 가구주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빈곤가구로 정의함<sup>3)</sup>

- 가구주 교육수준별 자산빈곤층의 비율을 살펴보면 무학 59.2%, 초등학교 이하 37.8%, 중학교 이하 26.8%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각 교육수준 그룹에서 자산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음

○특히, 무학인 경우는 59.2%로 일반 가구의 비율보다 오히려 빈곤가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주 종사산업별 자산빈곤층의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 37.4%,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6.7%, 건설업 29.4%, 농업·수렵업 및 임업 27.2%순으로 나타남

-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일용직에서 46.7%, 임시직 3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상용직은 19.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sup>4)</sup>

-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자산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위 순자산액 50% 이하를 자산빈곤가구로 봄

○이 경우 자산빈곤선에 해당하는 순자산액은 2,400만원이고, 자산빈곤 가구는 1,448가구로 전체 중·고령자가구의 약 34%에 해당함

- 조사대상가구가 빈곤가구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주 연령의 제곱항도 포함시켜 구한 추정계수로부터 최저점을 구해보면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

3) 빈곤선의 정의를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빈곤율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위자산 40%와 60%를 빈곤선으로 볼 때의 빈곤가구 비율은 각각 27.8%와 34.9%임

4)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그리고 일용직으로 구분되는데,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하여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임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근로활동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가 해당됨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짐
- 가구주의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거나 혹은 자기 집(거주용)을 보유한 가구는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짐

## 5. 정책제언

- 이 상에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요인분해,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차례로 살펴보았음
-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정책적 제언의 하나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장년층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IDA) 등과 같은 자산형성제도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역모기지 제도 등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워서 ‘노후 소득의 보장’이라는 복지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기초노령연금제도상의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하여 자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만연함을 감안할 때, 수급자격과 관련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게 유지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도 장기적으로 중·고령자 자산빈곤을 완화시키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향후 자산분포와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관련 원시자료를 다른 정부기관이나 학계에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를 통하여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임

남상호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2-380-81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